



변방에서 선진축구 중심으로

■ 전술로 본 한국축구

남아공 월드컵 본선 2차전서 아르헨티나에 패한 뒤 한국축구는 '세계의 벽'을 절감했다. 1-4리는 스코어가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이른바 '선진 축구'가 동경의 대상만은 아니다. 한국축구는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며 키와 몸무게를 키웠다. 특히 이번 월드컵서 한때 유럽 챔피언이던 그리스를 완파해 DNA가 바뀌고, 눈높이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졌음을 과시했다. 대표팀이 최근 4번의 월드컵 본선에서 사용한 전술을 비교해보면, 주류와 더욱 가까워진 한국축구를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 짚어보자. 에메 자케 감독이 이끄는 프랑스는 '크리스마스 트리(4-3-2-1)'라는 전형으로 월드컵 우승컵을 안는 첫 영광을 경험한다. 이 시스템의 위력은 대단했다. 브라질과의 결승전에서 3-0으로 승리, '아트사커'라는 명예로운 이름까지 얻었다. 지역 수비를 기초로 하고 중원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새로운 트렌드의 포메이션이었다.

반면 차범근 감독이 지휘했던 한국은 당시 '스위퍼 시스템'을 기초로 한 3-6-1, 3-5-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했다. 2명의 스토퍼 뒤에 최종 수비수(스위퍼)를

스리백 점고 '4-4-2 포메이션' 완성 단계 최근 4개대회 주류축 전형에 갈수록 근접

배치하는 전술은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퇴조했고 지역 방어를 초점을 맞춘 일자 수비가 대세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국 축구는 홍명보를 최종 수비수로 배치하는 '스위퍼 시스템'을 고집했다. 세계 축구의 흐름에 동떨어져 있던 시절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축구는 천지개벽의 신화를 창출한다. 현대 축구의 전술적 모델인 '토틸 사커'의 발원지인 네덜란드 출신의 히딩크 감독은 압박, 멀티 플레이, 파워 프로그램 등 생소한 개념을 대표팀에 도입한 덕분이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도 목표로 했던 포백 수비라인을 정착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취임 초기 포백 전환을 시도했지만 수비수들이 적응하지 못하자 결국 일자 스리백 수비를 기초로 한 3-4-3 포메이션으로 2002 한일 월드컵으로 나섰다.

2006년 아드보카트 감독은 '첨단 유행 전술'인 4-2-3-1 포메이션으로 독일 월드컵에 나섰다. 그러나 그도 '히딩크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반드시 승리해야 했던 토고와의 1차전에서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의 시도는 펄 베퍼백을 거쳐 '허정무호'에 이르러 완성됐다. 대표팀은 남아공 월드컵에서 4-4-2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했다. 성과를 떠나서 월드컵 본선에서 스리백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술적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한 강호들이 구사하는 전형은 포백 수비라인을 기초로 한 탄력적인 전술 운용이다. 스페인이 대표적인 경우다. 스위스와 1차전에서 다비드 비야(발렌시아)를 최전방에 세운 4-1-4-1 포메이션을 구사한 스페인은 온두라스와의 2차전에서는 비야와 페르난도 토레스(리버풀)를 투 스트라이커로 배치한 4-4-2 포메이션으로 임했다. 큰 틀에서 '허정무호'의 전술 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미래 밝다

남아공월드컵서 세대교체 가능성 확인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거둔 성과다.

무엇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세대를 대체할 새로운 세대가 가능성을 보여줬다.

4년 후 브라질 월드컵을 이끌 차세대 주역으로 단연 돋보인 것은 이청용(22·볼턴)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데뷔 시즌의 폭발적인 활약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켰다. 이청용은 2009~10시즌 5골 8도움을 기록하며 'EPL에서 박지성을 대신할 한국 축구의 새로운 간판'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는 대표팀에서도 이 같은 지위를 차지할 만하다.

광주 출신 기성용(21·셀틱 FC·금호고졸)도 대표적인 차세대 전력임을 입증했다. 특히, 그리스를 뒤흔든 첫 골은 금호고를 졸업한 기성용의 발끝에서 탄생했다. 전반 7분 이영표가 얻어낸 프리킥을 기성용이 책임졌다. 기성용이 반대쪽 포스트를 향해 올린 명품 프리킥은 쇄도하던 이정수의 오른발에 걸리며 그대로 골문을 갈랐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터진 골로 한국은 공·수에서 그리스를

압도하면서 2-0 완승할 수 있었다.

정성룡(25·성남)의 등장으로 한국 축구는 8년간 이어진 '이문재 시대'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성룡은 월드컵 무대에 처음 나선 수문장답지 않은 안정된 경기력으로 '포스트 이문재'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

한편, 김남일(33·포스토크), 이영표(33·알힐랄), 이문재(37·수원), 안정환(34·다렌) 등 한일월드컵 세대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는 출전하기 힘들다. 대들보 노릇을 했던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2011년 아시안컵 본선을 끝으로 대표팀 유니폼을 벗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남아공을 끝으로 4강 신화를 일군 세대가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영표는 그리스전이 끝난 후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후배들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밝혔다. 박지성은 "경기를 치를수록 성장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짧은 파"의 패기에 찬사를 보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6강
파이팅!

남아공 월드컵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운명의 한판을 앞둔 22일 오후 태극전사의 캡틴 박지성 선수의 모교인 경기도 수원 세류초등학교에서 박 선수의 축구부 후배들이 남아공을 향해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값진 경험

포르투갈에 0-7 대패 수도 당했지만 잠재력 확인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로 1차 특명을 안수한 김정훈 북한 축구 대표팀 감독이 세계의 벽에 막히면서 2단계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김 감독이 퇴임하면서 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의 목표는 16강 진출이었지만 1, 2차전을 모두 패하면서 3차전 결과와 관계없이 목표는 허무하게 좌절했다.

그가 이끄는 북한은 21일(이하 한국시간) 벌어진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무려 0-7 지는 수도를 당하기는 했지만 잠재력이 있다는 모습은 확인시켰다.

세계최강 브라질과 16강전에서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였고 이날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얻어맞고 젊은 선수들이 마구 흔들리기 전까지는 안정된 수비와 역습을 효율적으로 구사했다. 강호들과 겨룰 수 있는 자력이 있다는 점은 세계 무대에 알려준 셈이다.

현재 북한 대표팀에는 문인국(32)과 안영학(32)을 제외하면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즐비해 이들은 다시 한번 월드컵에 도전할 기회가 있다.

월드컵은 '최고의 무대'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나오는 팀들은 한 골도 못넣고 참패를 당하기 일쑤다.

북한도 1966년에 한 차례 출전한 적은 있었지만 44년만에 나온 이번 대회는 사실상 첫 출전이나 다를 없었다.

그런 면에서 북한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결과를 한단계 도약을 위한 값진 경험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정훈 감독은 지난 2007년 북한 대표팀을 맡아 이틀 짧은 선수를 조직력에 흡수해 월드컵까지 끌고 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17세 이하나 20세 이하, 23세 이하 대표팀을 거친 선수들을 대거 수혈해 성공적으로 세대교체를 이뤄냈다. 게다가 정대세(가와사키)와 안영학(오미야), 홍영조(로스토프) 등 해외파까지도 흡수해 국내 선수들과 잘 어울리는 전력의 핵심으로 녹여냈다. /연합뉴스

“유럽 대표팀 부진, 클럽이 망쳤다”

대형 구단들 외국인 위주 팀 구성

“젊은 선수 발굴 소홀” 비난 목소리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전통의 유럽 강호들이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각국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클럽이 대표팀을 망쳤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탈리아축구협회 지안카를로 아베테 회장은 22일(한국시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돈이 넘쳐나는 유럽의 대형 클럽들이 세계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는 데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아베테 회장은 “이번 월드컵에서 유럽의 강호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다. 네덜란드

를 제외하면 중남미 국가들만 미소 짓고 있다”면서 “클럽들이 각 나라 축구협회들보다 힘이 세다”고 한숨을 쉬었다.

물론 프랑스나 잉글랜드 등은 팀 내분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진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아베테 회장의 진단이다.

아베테 회장은 두 경기 연속으로 실망스런 경기 끝에 무승부를 기록한 이탈리아가 36살의 노장 파비오 칸나바로(유벤투스)를 비롯해 무려 9명이나 30대 선수들로 구성된 데에 핵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셸 플라티니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등이 외국인 선수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어린 선수가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아베테 회장은 “예컨대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축구협회 예산의 8할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플라티니는 물론이고 이제 누구도 클럽을 제할 수 없다. 그저 코치들이 어린 선수들에게 관심을 두길 기대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 선수 육성을 담당하는 트레버 브루킹의 진단도 비슷했다.

브루킹은 “지난달 17세 이하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스페인을 꺾고 우승했던 것처럼 잉글랜드에는 좋은 어린 선수들이 많지만, 그들이 국가대표로 성장할 만큼 경험을 쌓을 기회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아스널이나 첼시 등 대형 클럽들이 팀을 외국인 선수 위주로 구성하다 보니 어린 선수들이 톱클래스의 팀에 들어가 더욱 성장할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스널은 이번 대회 단 한 명의 잉글랜드 대표 선수도 배출하지 못했다. /연합뉴스